

16. 묘판관리방법에 따른 상내온도의 차가 불시출수 발생에 미치는 연구

(전라북도 농촌진흥원) 나종성* 황창주, 소재돈
김규태, 오남기, 이만상

평야부 수도 전후작 채소재배 지대에서 조생계 수도품종 재배시 불시출수 야기에 의한 수량감소를 경감시키고자 소맥벼를 공시품종으로 하여 파종기를 4.10, 4.20, 4.30로 달리하고 묘판순화작업 시기를 파종후 15, 20, 30일에 실시하여 35일묘와 45일묘의 불시출수 반응을 시험하였던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묘소질을 보면 순화작업시기가 늦어질수록 상내온도가 높게 유지된 결과에 기인, 묘가 도장되고 엽수의 진전을 억제시켰다.
2. 불시출수 발생에 미치는 묘상내 온도반응은 상내적산온도가 파종에서 순화작업 기간중에는 800 °C, 파종에서 이양직전까지는 1,000 °C 이상으로 경과하면 불시출수가 야기되었다.
3. 순화작업시기를 묘상내 적산온도 800 °C 이내로 조절하더라도 묘대 일수 지연에 의한 순화작업개시이후 이양까지의 묘상내 적산온도가 1,000 °C 이상으로 경과된 45일묘는 불시출수 발생시기도 빨라지고 발생율도 현저히 높았다.
4. 본답에서 불시출수 발생 경은 정상출수경에 비하여 지엽장은 길으나, 간장·수장은 짧고 임실비율도 낮아 수량을 기대할 수 없었다.
5. 불시출수 야기 답에서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수량구성 요소는 수수의 감퇴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